[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초집중 장세에 대한 고찰(5월 2주)

이재원 Market Analyst 02 3770 5719 I jaewon2.lee@yuantakorea.com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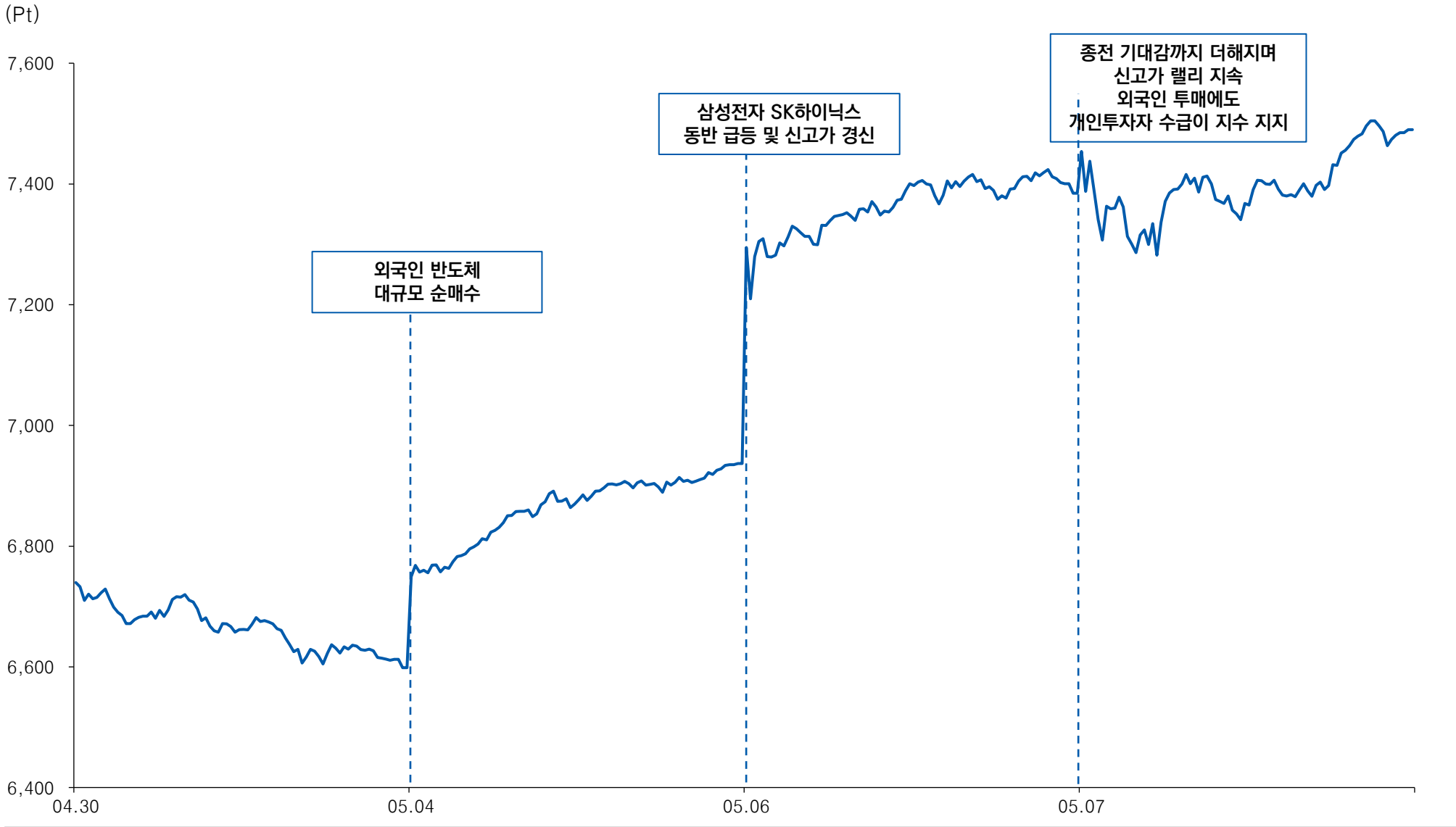
SUMMARY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초집중 장세에 대한 고찰(5월 2주)

- 금주(5/1~5/7) KOSPI는 13.5%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승 동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대형주였으며, AI 투자 확대 기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 AI Capex 확대 기조가 재확인되며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진행됐습니다.
- 이번 반도체 강세는 단순 테마 랠리보다 실적 추정치 상향을 기반으로 한 장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2주 전 600조원을 돌파한 이후 빠르게 상향되며 700조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의 대부분은 IT·반도체 업종이 견인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EPS는 역사적으로도 가파른 상향 흐름을 기록 중입니다.
-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 집중 현상이 강화됐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거래대금 비중은 과거 대비 극단적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외국인 순매수 역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유입됐습니다. 특히 삼성증권-IBKR 연계를 통한 해외 리테일 자금 유입 가능성은 기존 기관·외국인 중심 수급 외 신규 매수 기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반면 KOSDAQ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입니다. 현재 장세는 실적·수급이 동시에 대형주에 집중되는 구조이며, KOSDAQ은 KOSPI 대비 이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은 유효하지만, 당분간은 대형주 중심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업종 전략 측면에서는 반도체 중심 전략 유지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AI Capex Cycle 지속 속에 한국은 연산(반도체), 전력(전력기기), 저장(ESS·2차전지), 산업재(조선·방산)까지 공급 가능한 글로벌 제조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은 유지하되, 실적 추정치 상향 대비 주가 반응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증권·방산·조선·화장품 등 실적주 중심 순환매 대응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순식간에 7천피 훌쩍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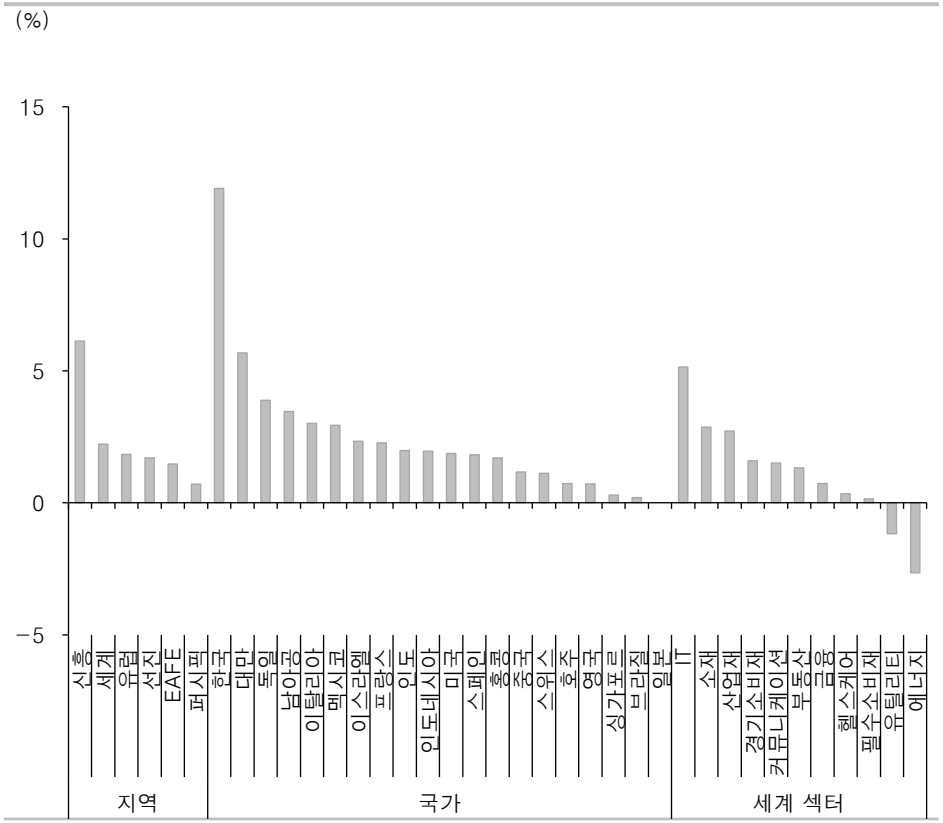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식시장 Review : 반도체 & 증권이 이끈 한국 신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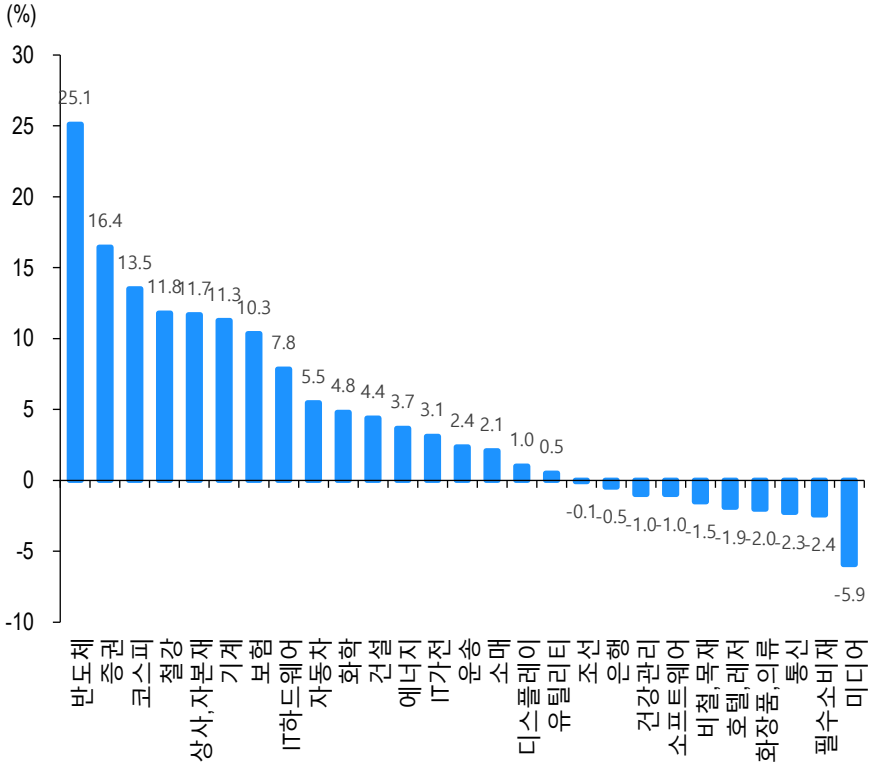
- 주간(5/1~5/7) KOSPI, KOSDAQ 각각 13.5%, 0.6% 상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압도적 신고가 경신에 지수도 동반 신고가 경신. AMD 호실적 발표 등에 AI 모멘텀 지속되며 미국 주식시장도 반도체 필두 신고가 경신
- 업종별로 IT 강세 지속됐으며 증권 업종이 IBKR-삼성증권의 외국인 개인투자자 국내주식 순매수 가능하게 하며 신고가 경신
- 세계 주식시장 대만&한국 영향에 신흥 시장 강세 지속. IT 중심 이익 추정치(펀더멘털) 상향과 지정학적 갈등 완화 기대감 속 신고가 랠리 다수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5월 6일 종가 기준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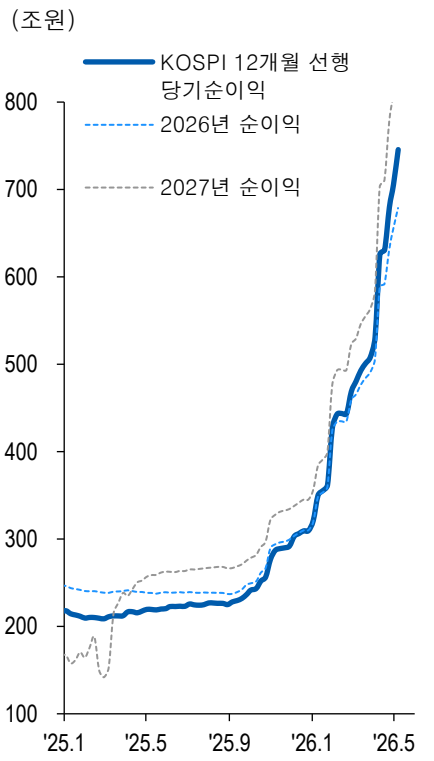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5월 7일 종가 기준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2주전 600조원 돌파, 어느덧 700조원 목전

- KOSPI, KOSDAQ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전주 대비 23.7조원 증가
- KOSPI IT 섹터 이익 증가 이번주도 지속. 업종별로 화학, IT가전, 반도체 업종 주간 EPS 증가 상위. 화학 업종의 경우 LG화학 영향. 2차전지(ESS) 모멘텀 지속
- 유틸리티, 호텔/레저, 증권 업종 주간 EPS 하락 상위 업종. 증권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으로 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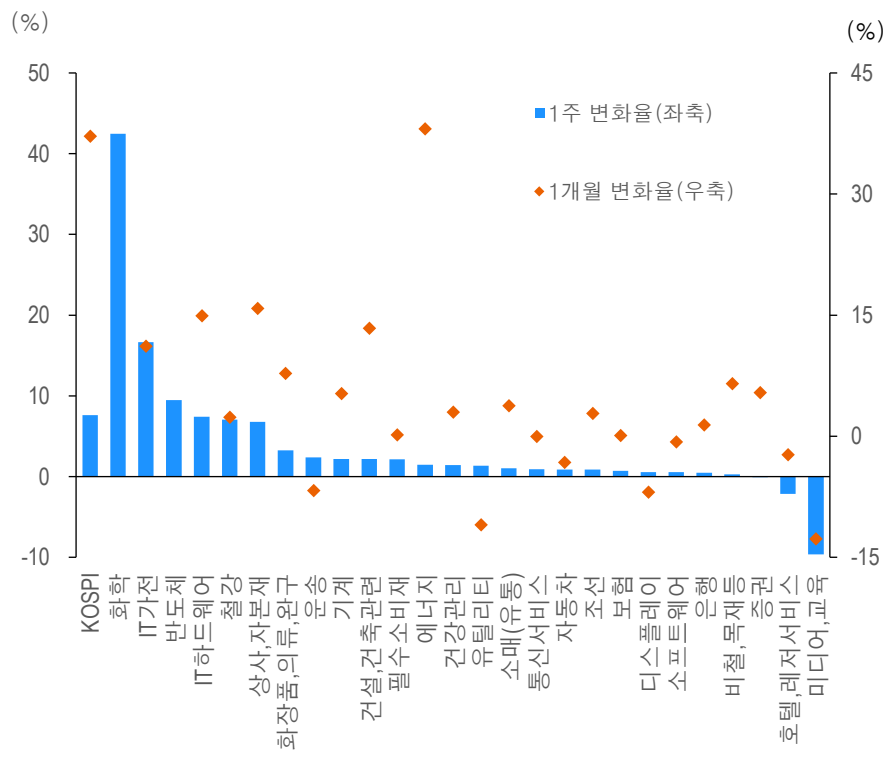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조원)	현재	전주	증감
KOSPI	678.8	655.1	23.7
KOSDAQ	9.6	9.8	-0.2
에너지	9.1	9.0	0.0
소재	6.6	5.9	0.7
산업재	68.0	68.4	-0.4
경기소비재	34.9	34.9	0.0
필수소비재	3.9	3.9	0.0
건강관리	6.5	6.6	0.0
금융	46.1	46.0	0.1
IT	493.4	470.1	23.2
커뮤니케이션	9.9	10.0	-0.1
유틸리티	10.0	10.0	0.0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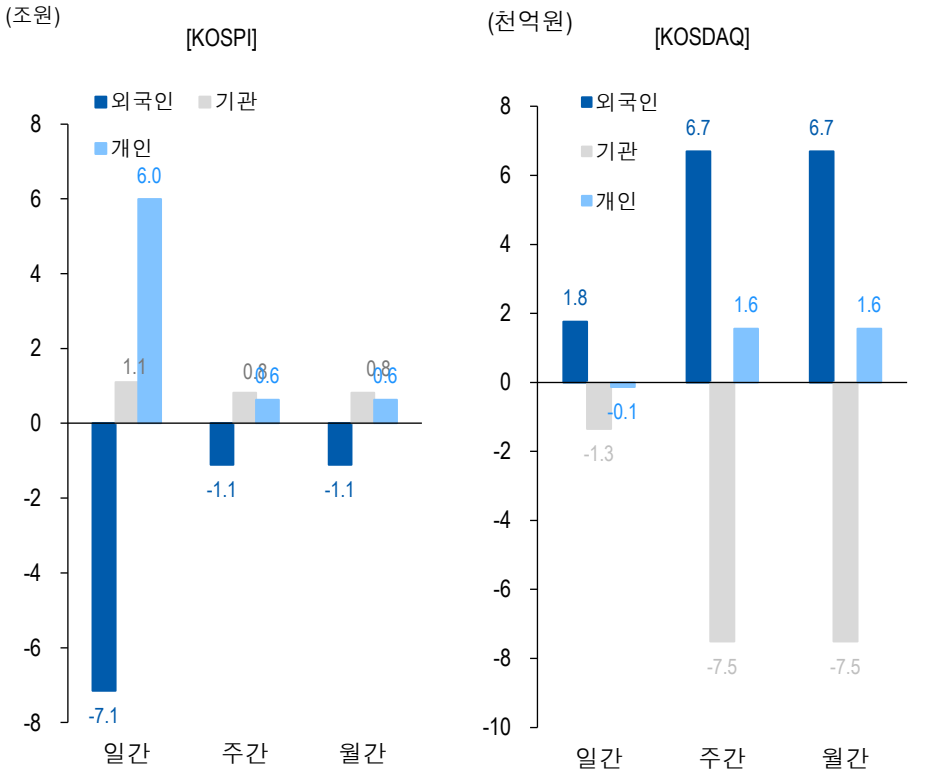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스마트머니가 반도체 매수 및 상승 견인

- 외국인 주간 1.1조원 순매도. 역대급 규모 순매수 속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KOSPI 신고가 경신 야기했으나 7일 하루만 7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주간 순매도 전환
- 순매수 상위 업종은 반도체에 집중. 이익추정치 지속 상향되며 신고가 랠리에도 밸류에이션 부담 부재. 스마트머니(외국인+ 기관)가 순매수 주체
- 증권 등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됐음에도 주가 흐름 약했던 업종 기관 자금 유입 및 반등. 종전 기대감에 차익실현 있었던 방산(상사,자본재) 역시 순환매 기대 가능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반도체	반도체	상사,자본재
	화학	증권	기계
	자동차	상사,자본재	건강관리
	IT가전	철강	조선
	에너지	I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순매도 상위	소프트웨어	화학	증권
	기계	소프트웨어	자동차
	건강관리	건설,건축관련	IT가전
	IT하드웨어	은행	철강
	상사,자본재	건강관리	반도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5월 2주차 주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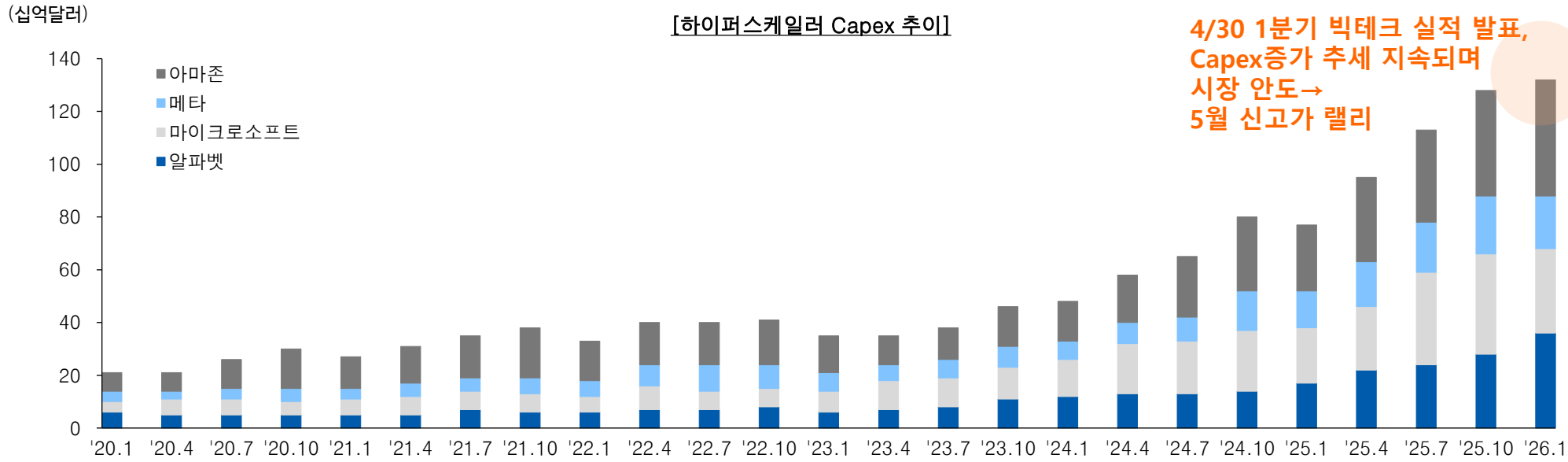
	5월 11일(월)	5월 12일(화)	5월 13일(수)	5월 14일(목)	5월 15일(금)
경제지표	미국) 관세 환급 개시 예정일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4월 소매판매	미국) 케빈워시 취임
정치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업	한국)S-Oil, 네오위즈, 더블유씨피, 데브씨스터즈,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삼성증권, 클리오 미국)버라이즌	한국)미래에셋증권, CJ씨푸드/제일제당, GKL, NHN, KT,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바텍, 달바글로벌, 덴티움, 위메이드, 휴온스, 펄어비스,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한국)NC, GS, HD현대,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클래시스, 컴투스, 이마트, 하나투어, CJ대한통운, 더블유게임즈, 컴투스홀딩스	한국) JYP Ent, SKIET, 메리츠금융지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 쏘카, 케이카, 한국앤컴퍼니	한국)현대해상
주목 Point	한국 금융주 실적으로 실적시즌 피날레 국면. 이번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 방중으로 생각. 최근 이란-미국 지정학적 갈등 완화 시그널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전 이란 전쟁 매듭지을 가능성 높다는 판단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지 시간 기준

빅테크 실적 발표는 Sell in May 를 무색하게 한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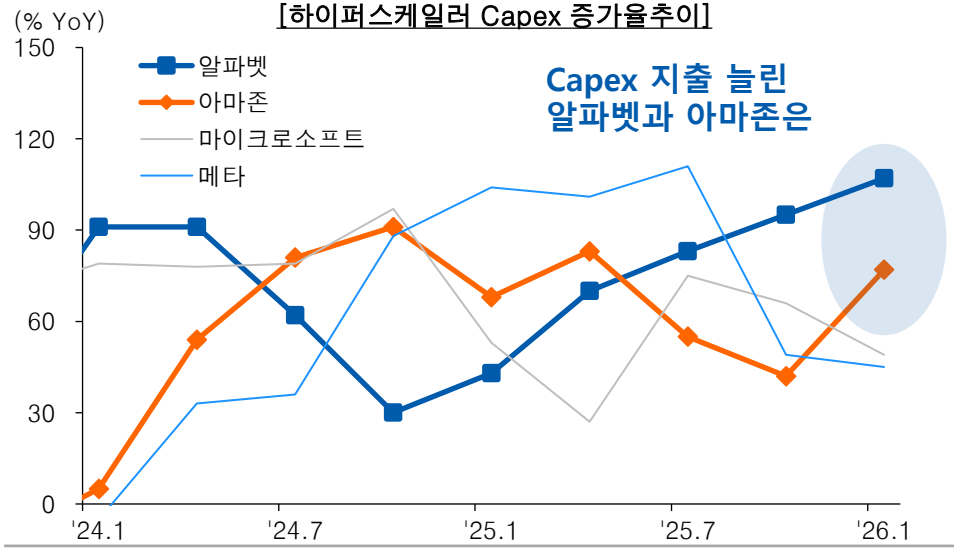
하이퍼 스케일러 1분기 호실적 발표, 시장 관심은 AI Capex에 달렸었으나 예상치 상회 및 가이던스 상향 조정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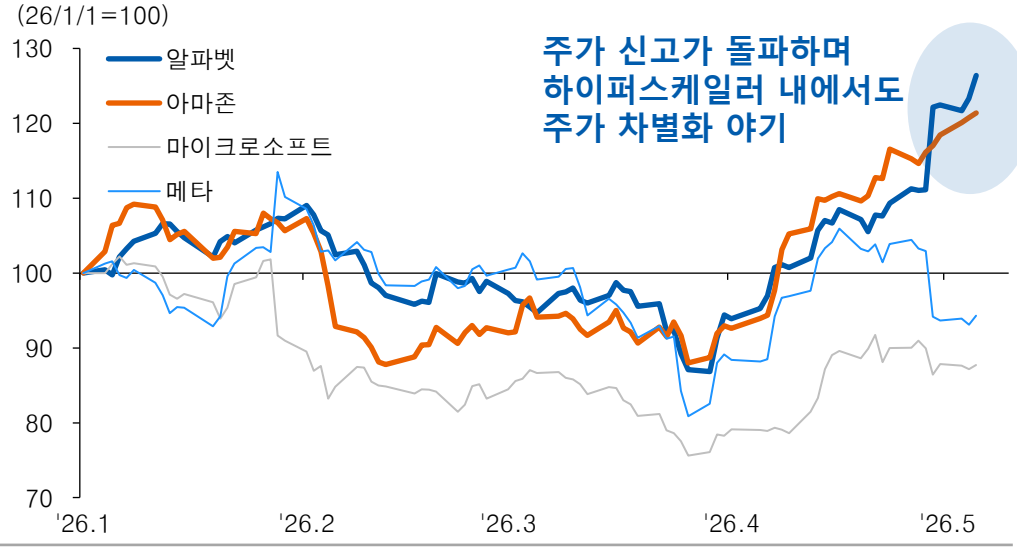


4/30 1분기 빅테크 실적 발표,
Capex증가 추세 지속되며
시장 안도→
5월 신고가 랠리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증가율추이]



Capex 지출 늘린
알파벳과 아마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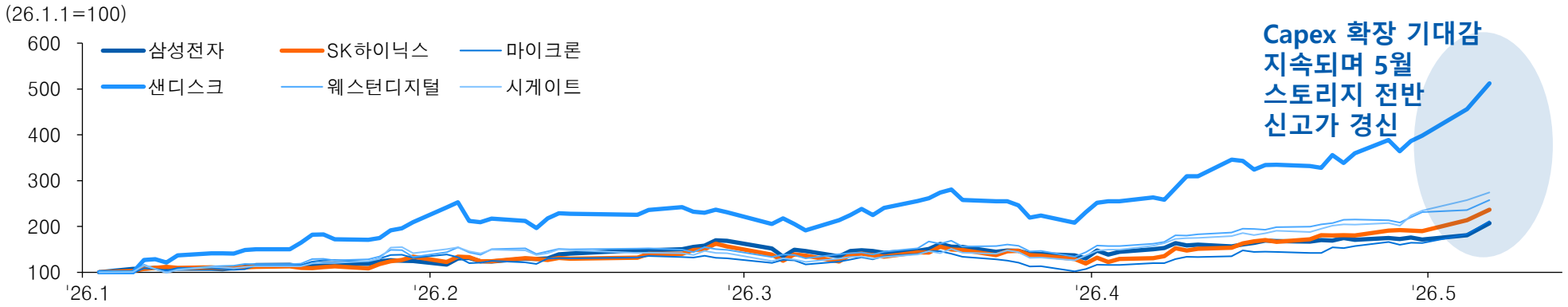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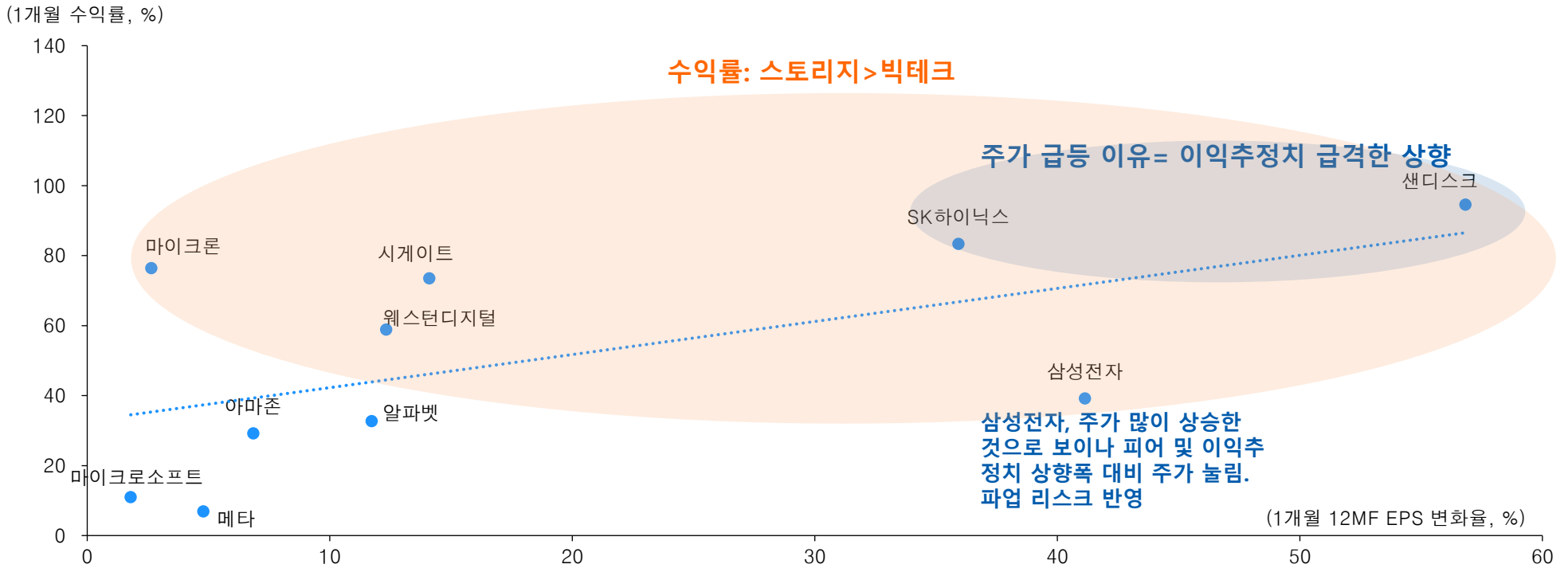
주가 신고가 돌파하며
하이퍼스케일러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 야기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apex 확대에 스토리지 주가 반응 빨라

빅테크 호실적은 빅테크 주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스토리지 주가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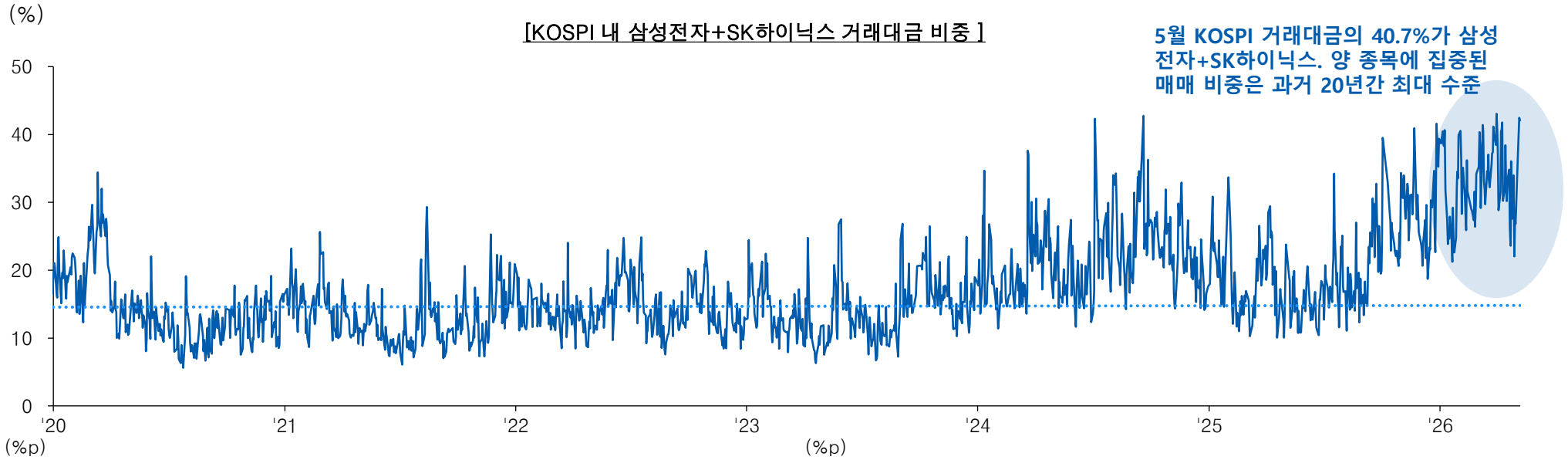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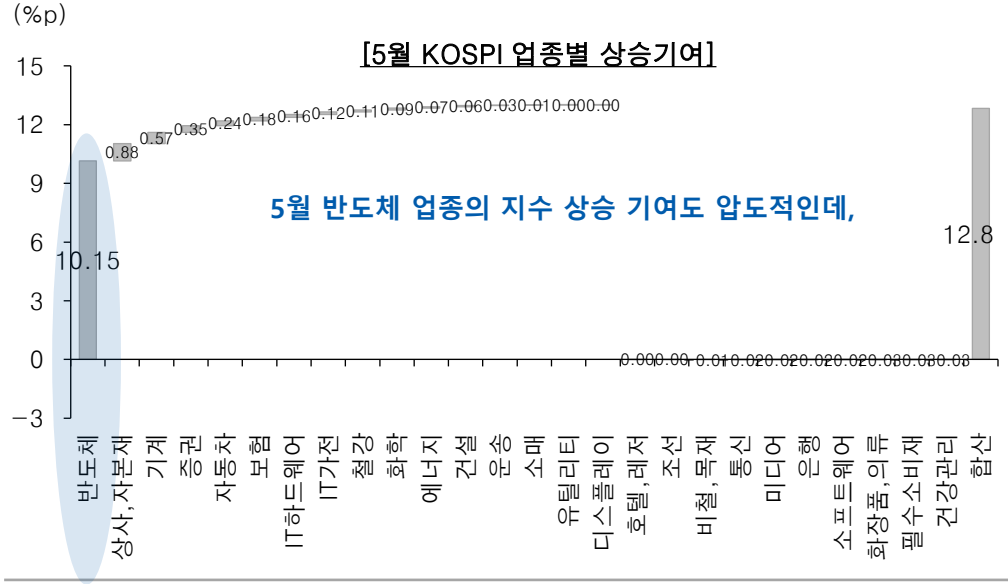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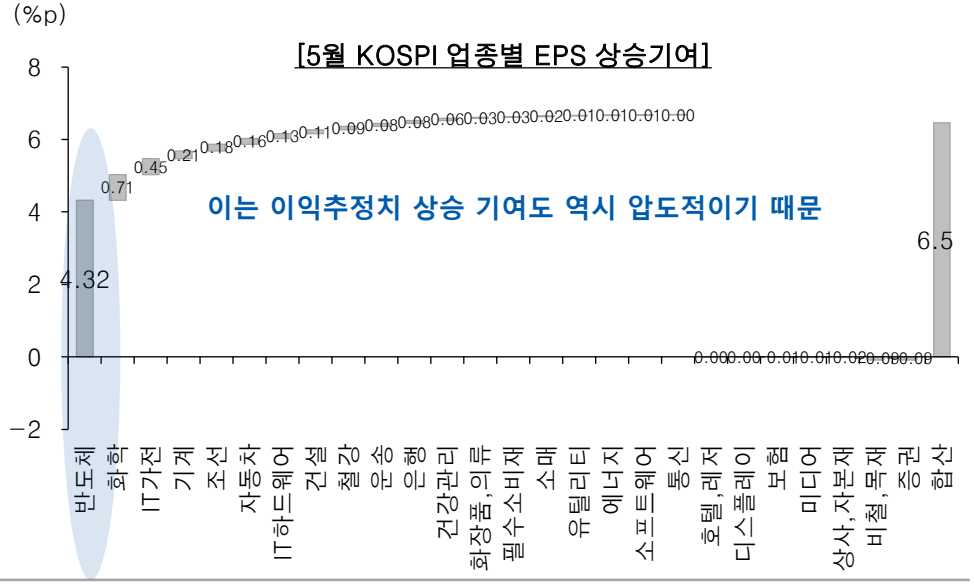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는 투자자들, 펀더멘털 강화가 야기한 FOMO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하며 지수 신고가 견인한 가운데, 두 종목 쏠림은 역대급 But 이익추정치 상승 기여 역시 역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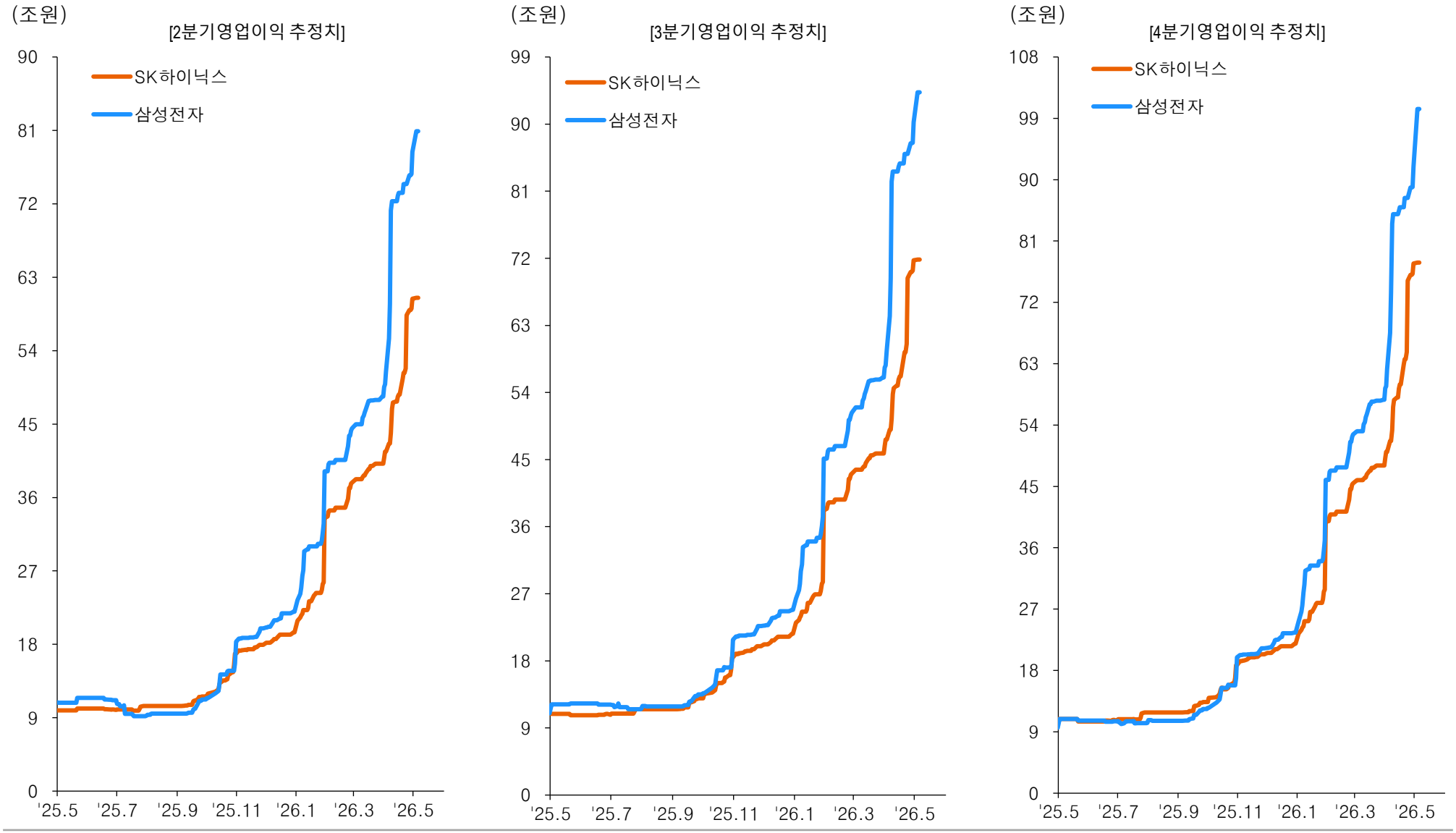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는 투자자들, 펀더멘털 강화가 야기한 FOMO -②

5월 들어 이익추정치 상향은 4월과 비슷한 기울기로 추세 유지. 과거 실적 발표 이후 기울기 완만해 졌던 경험과는 다른 상황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수급: (투자 아이디어 - 증권) IBKR을 경유한 외국인 개미까지 등장

- 삼성증권과 IBKR의 제휴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개선이 실제 미국 리테일 주문 유입 경로로 연결된 첫 사례
-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IBKR을 통해 한국 개별주식을 주문하고, 해당 주문은 삼성증권을 통해 국내 시장으로 연결. 국내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MTS에서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동일
- 브로커리지 수수료 확대를 통한 증권 업종 수혜와 한국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 기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시장 접근성 개선 논리 역시 강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변화 내용 정리

1. 기존 문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은 제한적

구분	기존 문제
계좌 개설 주체 제한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계열회사 등으로 제한
실무 불확실성	계좌개설, 배당, 의결권, 보고, 내부통제 절차가 불명확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해외 개인투자자가 쉽게 한국 주식을 사는 통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2. 바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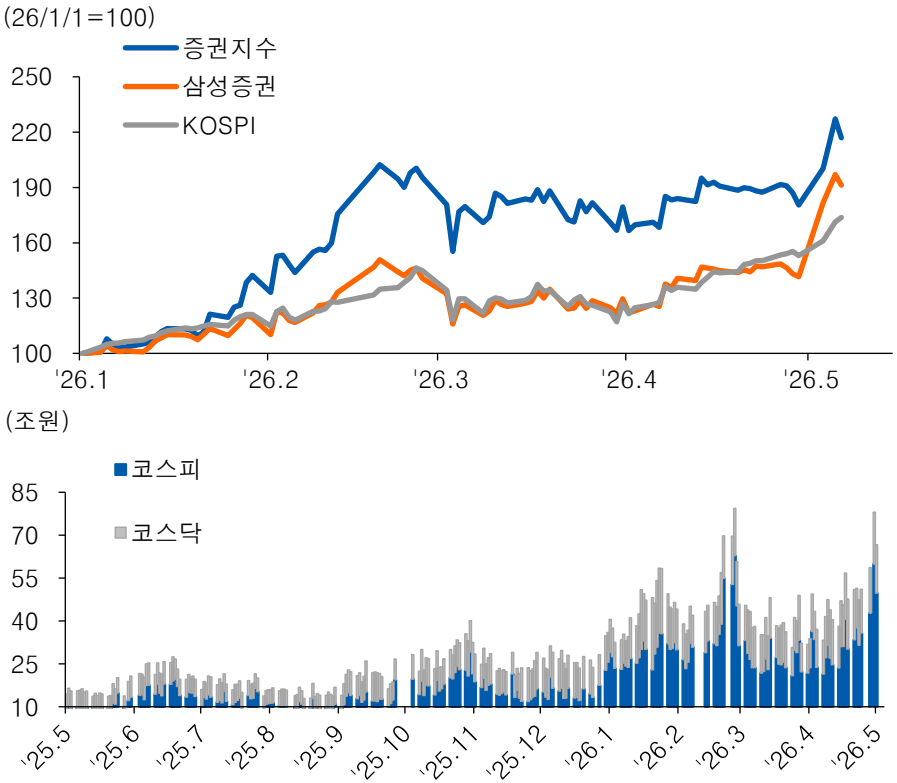
시점	변화
2025년 11월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2026년 1월	통합계좌 개설주체 제한 폐지
2026년 4월	가이드라인 개정본 반영
2026년 4월 말~5월	삼성증권-IBKR 시범 운영 부각

핵심: 해외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와 제휴해 통합계좌를 만들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

시사점 제도 개선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며, 해외 개인투자자의 한국 주식 접근성 확대 기대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가 달리면 증권주도 달린다(주가 추이, 위) 거래대금 추이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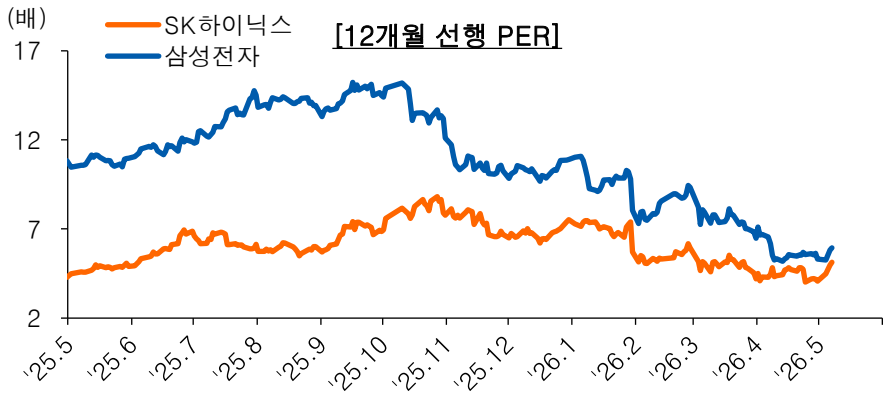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결론: 어떻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 결국 현재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극한의 쏠림 주도 신고가 장세는,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서 메모리의 재평가가 이뤄지는 과정. 21년 삼성전자 전고점 당시 처럼 새로운 논리(PDR, SOTP) 가 출현하며 밸류에이션을 억지로 정당화 하려는 시도도 부재. HBM 시장의 확대와 장기공급 계약의 확대, 삼성전자 파업 악재 해소, SK하이닉스 ADR 상장 등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하게 하는 +@ 요소. 외국인 통합계좌 역시, 외국인 입장에서 피어 대비 저렴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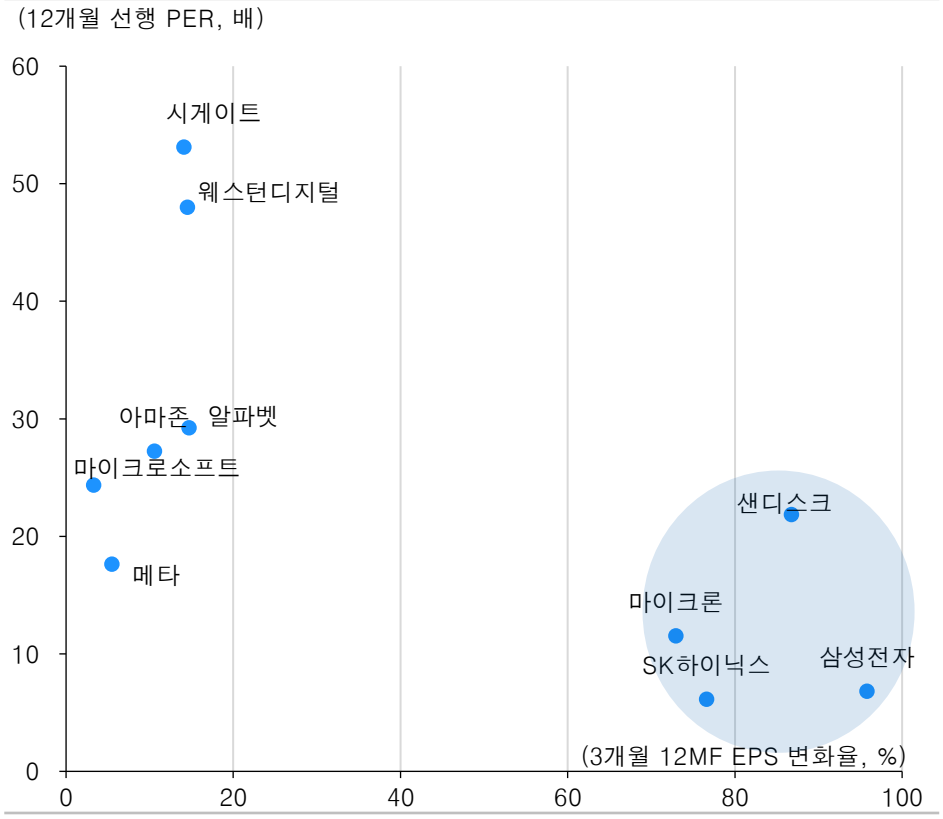
- 이익 추정치가 확실하게 꺾일 수 있는 논리의 출현, 경기 침체를 포함한 명백한 대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밸류에이션과 수급 상황에서 매도는 부적절

밸류에이션 부담도 여전히 없는 구간인데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스토리지 피어 대비 해도 밸류에이션 + 펀더멘털 모두 비교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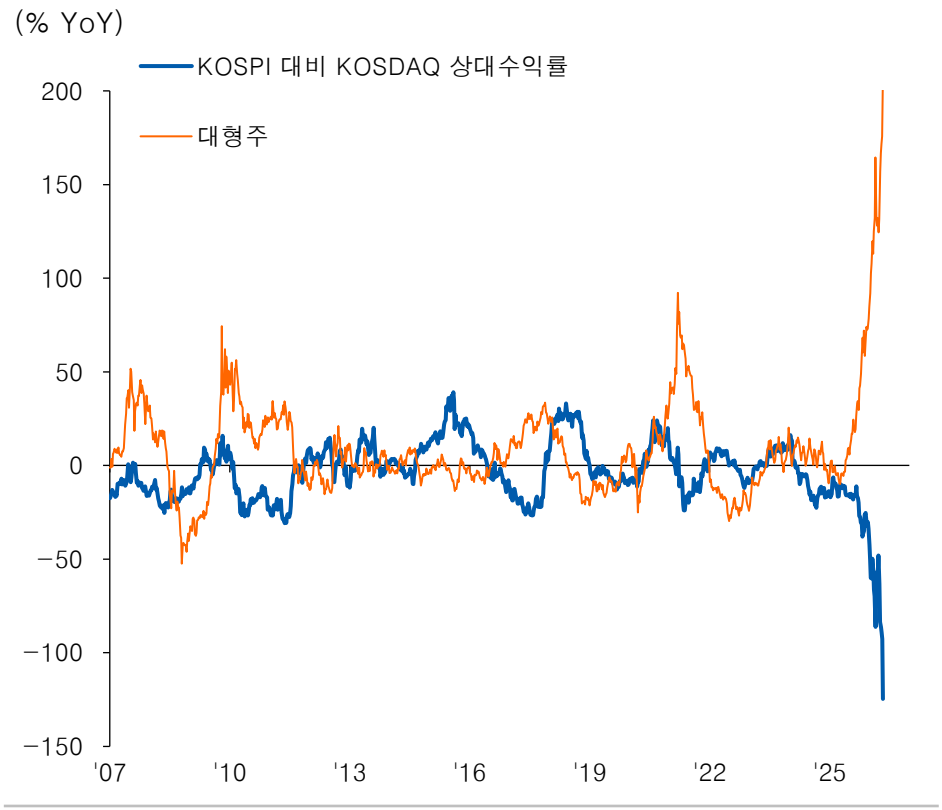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Q: KOSDAQ은요? A: KOSDAQ은 대형주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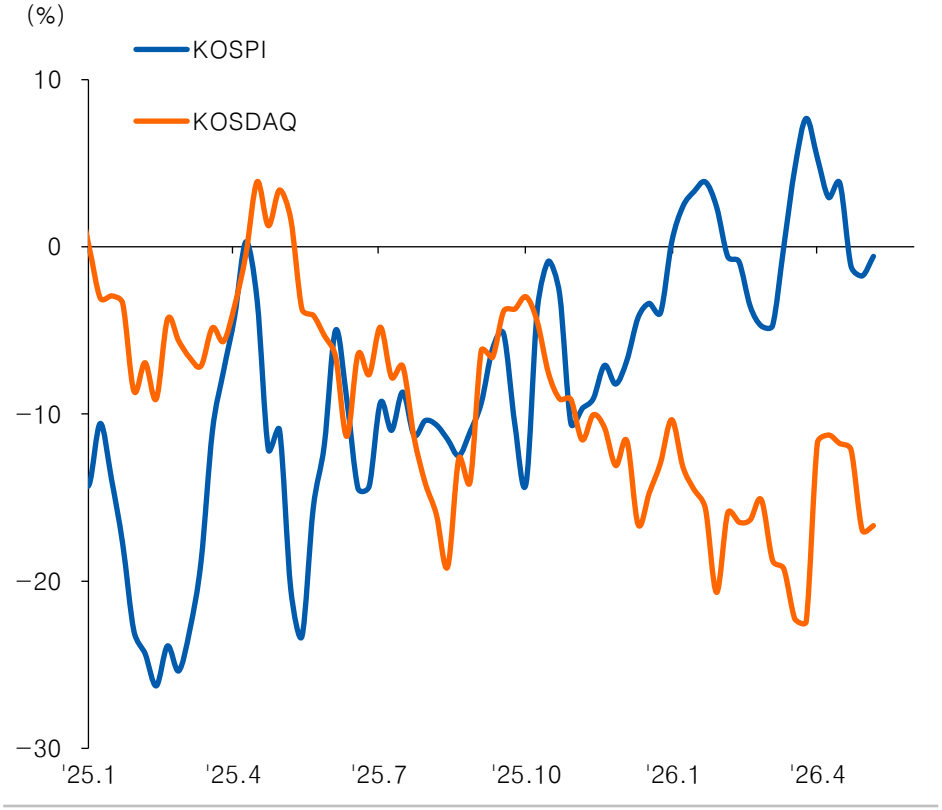
- 반도체 강세 및 호실적 대형주 랠리 지속된다면 KOSDAQ 부진 불가피. 수급 대형주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익 모멘텀마저 KOSPI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KOSDAQ은 순환매도 어려울 전망
- 다만 정부 정책 모멘텀은 유효. 22일부터 3주간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대형주와 KOSDAQ 상대수익률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KOSDAQ 이익수정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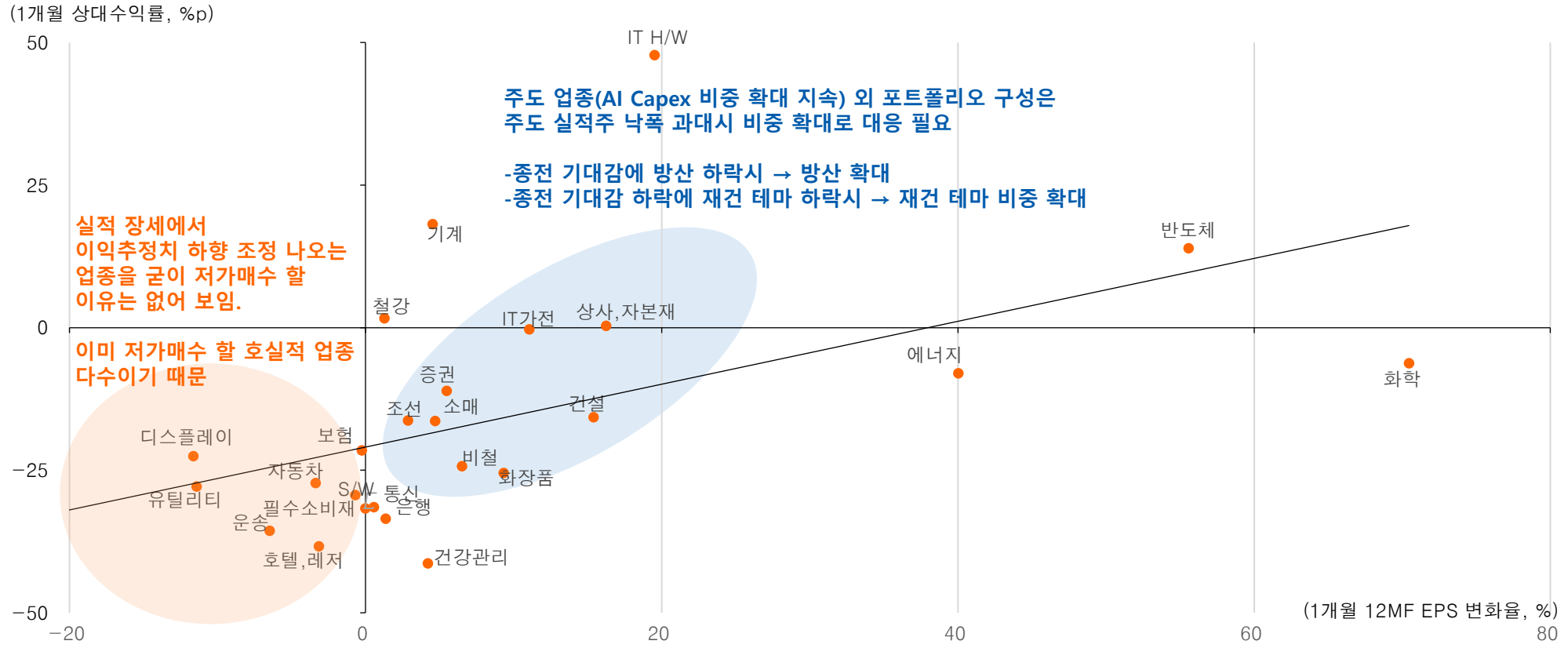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업종 전략: 실적 장세에선 실적주 순환매로 대응

- 반도체 이익 주도력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반도체 + 호실적 업종 구성으로 알파 추구 전략이 유효
- AI Capex Cycle 지속되는 가운데 풀스택 4-Layer(연산, 전력, 발전, 저장)를 모두 글로벌 경쟁력으로 커버하는 유일한 국가 는 한국. 연산(반도체), 전력(전력기기), 발전(원자력/SMR, 엔진), 저장(2차전지 ESS) 이 해당. 중심 축으로 구성할 필요. AI Capex Cycle이 만든 ①KOSPI 신고가 랠리의 수혜주 증권, ②방산, 조선과 같은 산업재, ③화장품과 같은 소비재 역시 호실적주. 낙폭 과대시 비중 확대 통한 순환매 대응이 유리하다는 판단

반도체 업종 절대비중 유지하며 실적주 순환매를 대기 : 방산, 2차전지, 건설, 증권, 조선, 화장품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知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